



지난 5일 광주시 북구 전남대 후문에서 자리한 일우문사(日又文舍) 강의실에서 김춘섭 전남대 명예교수가 '인문학 리케움'에 참여한 수강생들에게 강의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文史哲’에 길을 묻다... 인문학 열풍

〈문학〉 〈사학〉 〈철학〉

중·장년층 중심 연구 모임·강좌 개설 잇따라

지난 5일 오전, 광주시 북구 전남대 후문에서 자리한 하나빌딩 5층 일우문사(日又文舍) 강의실. 40~60대의 중·장년층 수강생들로 북적였다. 이들이 아침 일찍 이곳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인문학 리케움'(공동체 배움의 전당)을 연 김춘섭(전남대 국문과) 명예교수의 인문학 강좌를 듣기 위해서다.

### 인간성 회복·삶의질 추구

지난달부터 매주 세 차례씩 진행되고 있는 이날 강좌의 주제는 '기독교사, 성경의 역사'. 수강생들은 쉽고 친근하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김 교수의 강의를 열심히 메모하는가 하면 호기심 어린 질문으로 맞장구를 치며 호응했다.

서양사 강좌도 수강했다는 주부 임경희(54)씨는 "강의 덕분에 교양 프로그램이나 다문헌터리도 자주 보고 고전도 찾아 읽게 됐다"며 "호기심도 채울 수 있고 나도 뭔가 하고 있다는 존재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유럽 세계사 여행을 준비하고 있

다는 고은숙(여·52)씨는 "쉽게 생각하고 왔는데 배울수록 역사와 삶에 대해 알고 싶다는 욕망이 강해진다"며 "지도와 여행담을 담아 풀이 가는 교수님의 강의가 참 유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의를 마친 김 교수는 "지도를 자주 찾아보게 하고 고전을 읽게 하는 등 이야기를 쉽게 풀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세계사와 철학의 기초를 다지게 해 인문학의 즐거움을 전해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이른바 '문사철'(문학·사학·철학)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다. 소규모 배움터나 연구모임, 강좌가 잇따라 개설되고 수강생들도 의외로 많다.

지자체 등이 대학과 연계해 개설한 인문학 강좌는 매년 자리가 꽉 찬다. 광주시가 진행 중인 여성이카데미 강좌와 동구아카데미 강좌가 대표적이다. 광주전남작가회의가 매년 한 차례씩 여는 인문학 포럼도 늘 성황을 이룬다.

무각사(주지 청학스님) 문화원도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문화공간 Lotus, 작가들 만나다'는 이름으로 시작된 강좌는 고전평론가이자 '수유+너머' 연구원 고미숙씨와 김용택 시인이 다녀갔다. 오는 23일에는 언론훈세화씨가 강사로 나선다.

한국종교문화학회도 학자와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모임과 강연을 열고 있다. 2005년 창립된 학회는 정기적으로 공부모임을 이끌어 있으며 매년 서너 차례씩 각계 종교인 등을 초청 '종교 이야기의 밤'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 저명인 강좌... 수강생 몰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문학 열풍이 각종 비윤리적 사건·사고들이 만연한 시대에 인간성 회복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인문학 강좌가 매마르고 각박해져 가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마음이 풍요로운 삶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갈증 해소의 장'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립미술관 '현대미술과 인

문학' 강좌에 참여하고 있는 김제운(남·74)씨는 "정년 이후 무료하게 지냈는데 강좌를 통해 활기를 찾을 수 있었다"며 "문화·예술의 흐름을 이해하게 하고 정신적 소양을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최근 인문학을 위한 사랑방 '카페 필라소피아'를 열고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성진기(전남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최근의 인문학 열풍은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먹고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터득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며 "삶의 의미를 찾아 가는 노력이 인문학을 공부하게 하고 고전을 읽게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 도둑맞은 광양항 예산

배후개발사업비 중 170억 부산항 개발비로 전용

국토부 국감자료... 예산 집행률도 37%에 그쳐

광양항 개발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할 뿐 아니라 일부는 부산신항 개발비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8일 배포한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양항 2단계 배후수송시설 사업 결산 결과, 예산 150억 6300만원 중 94억3400만원이 이월돼 집행률이 37.3%에 그쳤다. 또 부두 내 도로 2공구 시설비도 144억5800만원 예산 중 51억7900만 원이 이월돼 집행률이 35.8%에 그쳤다.

특히 광양항 개발사업 결산 결과,

예산전용이 5건이나 됐다. 광양항 3단계 준설토투기장 가호안 축조공사(1공구) 예산 29억원과 광양항 읍촌산업단지 일반부두 축조공사 5억4000만원, 광양항 부두 내 도로 2공구 건설공사 61억6300만원, 광양항 서측인입철도 건설공사 72억6700만원, 광양항 서측인입철도 건설공사 시설부대비 1억원 등 총 169억7000만원이 부산신항 배후철도 시설비와 부산신항 1단계 시설 부대비로 전용, 투입됐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광양항 개발은 부산항에 치우친 불균형을 분산배치하려는 국가계획에 의한 것인데,

대규모의 예산전용과 낮은 집행률로 인한 것은 정부가 말하는 '투-포트(양항)정책'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광양항 개발을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특히 예산 전용은 국회가 확정된 사업예산에 정부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으로 정부가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광양항이 자립항만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시까지 부산-광양항 동시 기항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부산항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노벨평화상에 中 류샤오보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중국의 반체제 민주화 운동가인 류샤오보(劉曉波·55·사진)가 선정됐다.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는 8일(현지 시각) 오슬로에서 2010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류샤오보를 선정해 발표하고, 그가 "중국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위해 길고 비폭력적인 투쟁을 벌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위원회는 또 "그는 1989년 톈안먼 시위에 참여했으며, '08헌장'의 주요 저자였다"면서 "그는 중국 인권 개선을 위한 광범위한 투쟁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성명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의 정치적 권리와 인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탄을 날렸다.

류샤오보는 웨이징성(魏京生) 등과 함께 중국의 대표적 반체제·민주화 운동가이자 인권 활동가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운동 당시 방금 귀국, 단식투쟁을 이끈다 수감

된 것을 시작으로 고난으로 점철된 민주화 운동의 길을 걸었다.

류샤오보는 2008년 12월 세계인권선언 채택 60주년을 맞아 민주화 요구를 담은 '08헌장(Chart 08)' 발표를 주도하고 그 때문에 긴 옥살이에 들어가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인물이 됐다.

언론 자유 보장, 인권 개선, 자유선거 등을 요구하는 '08 헌장'이 발표되기 이전인 2008년 12월8일 전격 체포된 그는 이듬해 12월10일 체제전복을 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로부터 보름 뒤인 12월25일 베이징 제1중급 인민법원에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류샤오보 문제를 놓고 중국 인권문제를 비판해온 서방과 중국은 최근 수년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반면 중국 정부는 이를 '내정간섭'으로 규정해 채 자국의 사법 주권을 존중하라며 맞섰다. 때문에 그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서방과 중국간의 신경전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



된다. 시상식은 12월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며 상금으로 1천만 스웨덴 크로네(약 16억7천만원)가 수여된다. /연합뉴스

당신만을 위한 비즈니스 호텔  
\*런치 스페셜 - 해물지리탕, 추어탕, 육개장  
\*특선해물뷔페 - 35,000  
\*객실: 전 객실 50% 할인  
\*웨딩홀: 웨딩패키지 할인 숙박권 증정  
\*돌잔치: 숙박권증정 및 패키지 할인  
\*침선·각종 세미나 (대·중·소연회장 안내)  
이딩크관광호텔  
예약문의 ☎(062) 227-8500  
www.hiddinkhotel.com

光州日報과 함께 행복한 주말을

‘행복전도사’의 죽음 ▶3면 ‘보험의 함정’ 잘 살펴라 ▶4면 7080총장축제 화보 ▶5면 Books ▶8·9면 꿈의 신소재 ‘그래핀’ ▶13면 신지애 첫날 부진 ▶14면

“ENJOY THE FOOD LIFE”  
베네치아와 함께 하세요!!  
★스테이크의 환상 짝꿍! 와인

저희 베네치아 월드컵점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향 좋고, 맛좋은 고급 와인을 저렴한 가격에 즐기실 수 있으며 각종샐러드와 다양한 스테이크, 해산물요리와 함께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즐거운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바베큐 폭립, 바닷가재 안심스테이크, 메로스테이크, 안심스테이크

월드컵점 OPEN  
패밀리레스토랑 (since 1988)  
베네치아  
www.venezia.co.kr  
대소모임을 위한 단체(40~70석가능)  
베네치아 20%할인 및 포인트·적립·결제카드  
SK멤버십카드 / OK Cash Bag신세계포인트카드 / 광주은행비자카드 / 삼성카드 / 현대카드  
월드컵점 062) 675-6636  
\*모아골프연습장 1층\*  
\*본점 062) 227-9363  
\*롯데점 062) 232-7370 \*신세계점 062) 360-1981  
\*목포점 061) 283-2720 \*첨단점 062) 971-7654